2018. 7. 2 434호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반려견 성향 인식표 부착해 사고 예방	에드먼턴
산업·경제	4	설립절차 완화 등 소규모사업 규제개혁	빅토리아
	6	쇼핑센터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스마트마켓 조성	자카르타
사회·복지	7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연대축제 개최	파리
행재정·교육	10	구글·市 공동운영 디지털 아카데미 개원	스톡홀름
	12	스포츠 활동 참여율 70% 목표 종합계획 수립	도쿄
	14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비라이드 앱 개발	자카르타
	16	정부기관 웹사이트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개편	뉴욕
도시계획·주택	19	기업·市·대학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요코하마
	21	세계최고 스마트시티 목표…5개 미션 제시	런던
	23	세입자·지역사회 실정 맞춰 임대료 제동법 개정	베를린
	26	에어비앤비 규제강화로 ‘실거주자 보호’	보르도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정책 수립 및 도시 분야 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세계 선진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통신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간과 관련된 문의사항과
발간에 참고할 만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출판팀 정연우(02-2149-1017,
cyw797@si.re.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케이프타운	김소망
암스테르담	장한빛
베를린	신희완
	유진경
	홍남명
뉴욕	윤규근
	이수진
	이정근
	정수지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시애틀	강민규
시카고	김영준
스톡홀름	문선우
	허윤회
바르셀로나	진광선
런던	오도영
버밍엄	정기성
피렌체	김예름
자카르타	박재현
도쿄	박재호
	이용원
오사카	권용수
베이징	박성은
상하이	문혜정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김용훈
보르도	김준광
파리	배세진
시드니	정용문

반려견 성향 인식표 부착해 사고 예방

목줄 필요 없는 공원 확대 등 반려견 복지정책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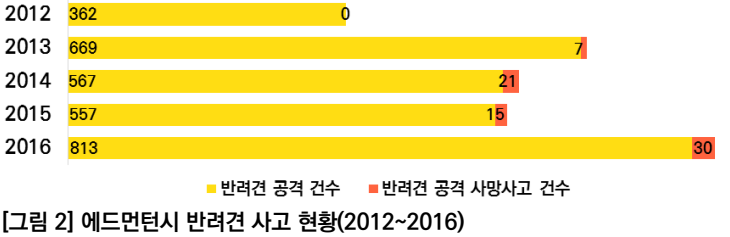
캐나다 에드먼턴市 / 환경·안전

○ 캐나다 에드먼턴市는 최근 반려견 보유 가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공격사고가 증가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당국은 이에 대응해 반려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을 늘리는 등 반려견 복지정책도 함께 모색

– 배경

- 최근 반려견 공격사고가 잦아져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 올 2월 발생한 핏불(투견으로 유명한 사나운 견종)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고가 유튜브에서 14,500회의 조회 수를 기록
  - ○ 2016년 총 813건의 반려견 공격사고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30마리의 반려동물 사망사고가 발생
  - \-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2배가 넘는 반려견 공격사고가 발생

[그림 1] 2018년 2월 발생한 반려견 공격사고 장면



[그림 2] 에드먼턴시 반려견 사고 현황(2012~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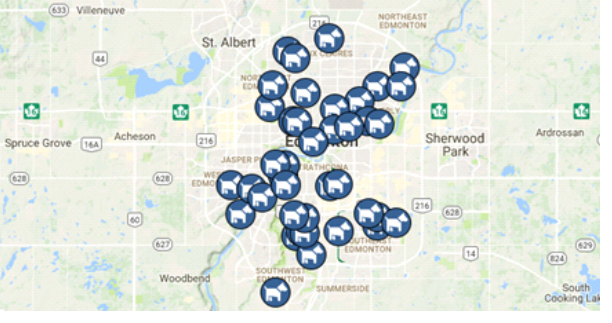
- 에드먼턴에는 19세 이하 아동·청소년보다 반려동물이 더 많이 살고 있음
  - 2016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드먼턴시의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8만 9,598명이고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19만 5,243마리로 집계
- 반려견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2,500캐나다달러(220만 원) 벌금 부과
  - 반려견의 공격으로 상해사고 발생 시 반려견주에게 50~2,500캐나다달러(42만~220만 원)의 벌금
  - 배설물 미처리, 무감독, 제한지역(학교, 놀이터 등) 출입, 목줄 미착용에는 100캐나다달러(8만 원), 무면허는 250캐나다달러(22만 원)의 벌금 부과

– 반려견 사고 관련 주요대책
- 앨버타주정부 보건국은 반려견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제를 시행
  - 반려견 출입 허가 식당은 되도록 정원·테라스 등 외부공간 이용을 권장
    - 외부공간 바닥은 석재나 콘크리트로 하며, 보건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
  - 요식업 종사자의 반려견 접촉을 금지
  - 식당에 출입하는 반려견은 최신 접종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사회성 교육을 받아야 함
- 시정부는 반려견의 공격행위를 6단계로 분류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
  - 레벨1은 물리적 접촉이 없는 친밀행위이고, 레벨6은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단적 공격
- 반려견의 성향을 멀리서도 알 수 있는 인식표 사용
  - 민간 동물구조단체 Berkeley's Place와 협력해 DEWS(Dog Early Warning System)라는 인식표 활용체계를 마련
  - 신호등과 같은 색표시로 멀리서도 반려견의 성향을 알 수 있음
    - 빨강: 접근금지를 의미하며 질병·노환·수술 후와 같은 상태를 나타냄
    - 노랑: 주의를 요하는 표식이며, 타인이 접근하거나 친밀감을 표하고자 할 때는 견주에게 허락을 구하고 언제나 주의를 해야 함
    - 초록: 위험이 없고 친근한 성향이지만, 접근할 때는 되도록 견주의 허락을 구할 것
- 반려견 공격 줄이기 전략(Dog Attack Reduction Strategy) 시행
  - 반려견 공격사고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주요지역 순찰과 반려견 공격사고의 사후 처리를 담당

- 예방대책은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관련규칙 개정과 민간기관을 활용한 반려견 사회화 교육 등을 할 계획

– 반려견 복지정책 연구

- 시는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 42곳을 운영 중
  - 공원 이용 시에는 반려견 면허를 소지하고 백신을 접종한 상태여야 함
  - 홈페이지에서 구글맵과 연동해 가까운 반려견 산책공원 정보를 제공
- 앨버타대학 연구결과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을 늘릴 것을 권장
  - 공개지리정보 시스템을 분석해 도시 전체의 반려견 분포를 확인
  - 도시외곽 지역이나 신규이주자 그룹은 자녀보다 반려견의 수가 더 많음
  -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 소유자는 대부분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이 20분 이내 거리에 있을 때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
    - 반려견 산책공원이 근처에 없으면 산책 빈도가 줄어 반려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려견이 많이 사는 지역에 더 많은 산책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그림 3] 목줄이 필요 없는 반려견 산책공원 안내지도

https://edmonton.ctvnews.ca/i-thought-george-was-going-to-die-dog-owner-recounts-west-edmonton-pit-bull-attack-1.3866694
https://edmonton.ctvnews.ca/small-dog-killed-by-larger-off-leash-dogs-in-northeast-edmonton-1.3946713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dog-attacks-on-pets-at-five-year-high-in-edmonton-1.4249925
https://www.edmonton.ca/residential_neighbourhoods/pets_wildlife/dog-early-warning-system.aspx
https://www.edmonton.ca/activities_parks_recreation/parks_rivervalley/off-leash-sites.aspx
http://www.berkeleysplace.com/
Animal Licensing and Control Bylaw, 2014

장지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

산업·경제

설립절차 완화 등 소규모사업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州 / 산업·경제

○ 호주 빅토리아州는 소규모사업(Small Business)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함.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사소한 규제 철폐, 관련 안내서 발간 등을 시행해 소규모사업의 활성화를 도움

- 배경과 목적
  - 소규모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
    - 호주의 소규모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16억 5천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
    -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천여 개의 소규모사업체가 운영 중
  - 번거로운 행정규제(Red Tape)가 소규모사업체의 설립·운영에 장벽으로 작용
    - 간판 설치부터 식품안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규제가 적용 중
    - 소규모사업체는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을 행정업무에 사용하며, 이는 가용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호소
  - 주정부는 2016년부터 '소규모사업 규제검토'(Small Business Regulation Review) 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규제와 행정절차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
    - 우선 '소규모사업 규제현황 보고서'(Small Business Issues Paper)를 작성해 소규모사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정책제언을 받음
    - 2017년에 규제개혁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한 번 더 공개논의를 진행
    - 2018년 6월 규제개혁 최종실행계획을 발표
  - 관련 조치로 연간 1억 3,800만 호주달러(1,14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기대

- 주요 내용
  - 소규모사업 규제검토 프로그램은 소매업, 방문자 경제(Visitor Economy), 건설업의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특화 실행계획을 제시
  - 주정부는 규제 부담감소 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 소규모 소매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규제는 사업승인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나 규제 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승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
  - 이외에도 사업 전반에 걸쳐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규제를 한 번에 알려주는 지침서(Road Map)가 없음
  - 규제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카페·식당·테이크어웨이 음식점으로 연평균 6,000호주달러(500만 원)를 규제비용으로 지출
- 소매업 규제개혁 실행계획은 4가지 의제를 제시
  - 1) 정보 접근성 강화
    -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
    -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 승인 대행 담당자(Council Concierge)를 제공
    -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
    - 위험도가 낮은 사항에 관한 규제는 철폐
  - 3) 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풀이하는 책자 발간
  - 4) 임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 임대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소규모 소매업자가 임대를 시작하거나 갱신할 때 계약조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함
    - 임대 종료 시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납부 기한 설정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도록 표준 임대계약서를 개선

– 기대효과
- 최장 18개월까지 걸리던 소규모사업 승인 기간이 이번 규제개혁으로 90일 이내로 줄어드는 등 소규모사업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
- 더 빠른 설립과 성장이 가능해진 소규모사업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https://www.premier.vic.gov.au/reforms-saving-millions-for-victorias-small-businesses
https://engage.vic.gov.au/smallbizreview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

쇼핑센터 디지털기술 도입으로 스마트마켓 조성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 산업·경제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전통의상 등을 취급하는 '폰독 인다'(Pondok Indah) 쇼핑센터에 디지털 결제수단과 가상현실 부스 등 디지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마켓을 처음으로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

- 배경
  -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인 자카르타州는 최근 부상하는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기술의 일상생활 적용에 많은 관심
    - 특히, 일상생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쇼핑환경의 개선이 주요 관심대상

- 주요 내용
  - 스마트마켓은 기존 시장에 QR코드 등 현금이 필요 없는 결제수단, 무료 와이파이(Wi-Fi), 가상현실 부스 등 최신 디지털기술을 도입해 조성
    - 첫 스마트마켓 도입지는 남자카르타市 폰독 피낭(Pondok Pinang) 지역의 폰독 인다 쇼핑센터로 6월 2일에 공식 오픈
    - 자카르타주 부주지사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는 '오늘날의 디지털기술은 생산부터 관리·마케팅까지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
  - 폰독 인다 쇼핑센터는 3층 건물에서 인도네시아 전통의상인 바틱(Batik) 등의 면직물과 수공예품을 주로 판매
    - 자카르타주 공영회사인 'PD 파사르 자야'(Pasar Jaya)가 2015년 현대화
  - 'PD 파사르 자야'와 주정부의 '1구 1창업센터(OK OCE) 프로그램'(※ 430호 참조), 국영통신회사인 텔콤(Telkom) 간의 협력으로 조성
    - 앞으로 자카르타 내 다른 시장이나 1구 1창업센터 프로그램의 창업자에게도 비슷한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아울러, 스마트마켓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도 개선 예정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6/02/11343711/pasar-pondok-indah-resmi-jadi-smart-pasar-seperti-apa-pintarnya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6/02/deputy-governor-inaugurates-smart-market-in-south-jakarta.htm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사회·복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연대축제 개최

프랑스 파리市 / 사회·복지

○ 유럽 난민위기가 발생한 2015년부터 난민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프랑스 파리市는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연대축제를 개최하고, 파리시민과 난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포츠·문화·예술·놀이 활동 위주로 축제를 진행

– 배경: 유럽 난민위기와 파리시의 대응 방향

- 2015년 시작된 유럽 난민위기를 조화롭게 해결해왔던 파리시
  - ○ 2015년 국제정세의 변화로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난민이 쇄도하자 유럽 전체는 이를 '난민위기'(La Crise Migratoire)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
  - ○ 배제에 맞서 싸우는 '사회적 연대'를 줄곧 시정 철학으로 제시해온 파리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는 난민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했다고 평가
- 난민위기 발생 직후 이달고 시장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시 실천 전략 18개를 구상하고 다음 5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
  - ○ 1) 난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머무를 공간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
  - \- 파리시는 유럽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그 어떤 도시보다 신속하게 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난민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
  - ○ 2) 난민 수용공간 마련에 필요한 부동산 문제를 법적·경제적으로 지원
  - ○ 3) 난민의 생존에 꼭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공급하고 프랑스어 교육 제공
  - \- 난민 수용공간에 생필품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고, 난민을 프랑스 시민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어 교육도 제공
  - ○ 4) 파리시민의 자원봉사 적극 참여를 유도
  - \- 자원봉사 재능기부 플랫폼인 jemengage.paris 사이트를 활용
  - ○ 5)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다각도 노력
- 특히 여성·어린이 난민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거주공간인 난민센터 건립
  - ○ 샤워시설을 비롯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고, 교육·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해 파리 18구에 900㎡ 면적의 난민센터 건립
    - 파리-노르(Paris-Nord) 휴머니티 센터, 이브리-쉬르-센(Ivry-sur-Seine) 여성·어린이 난민센터도 추가로 설립
    - 하지만, 난민센터는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이라는 한계가 있음
    -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공식적인 시민 자격을 얻고 거주지를 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
    - 난민 수용공간이 여전히 부족해 난민을 자신의 집에 수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중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연대축제 개요
  - 파리시 난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연대축제를 개최
    - 올 6월 20일 파리시 리퍼블릭 광장에서 국제연합(UN) 난민문제해결팀과 파리시가 협력해 주최
    - 난민관련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열리는 축제적 성격의 행사
  - 파리 시민과 난민이 함께 스포츠·문화·예술·놀이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이 난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행사
    - 축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학술적 성격의 토론회도 개최
    - '난민에 대한 환대와 통합'이라는 큰 주제 아래 콘퍼런스,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다양한 토론회 개최

- 주요 행사 소개
  - '어린이의 언어로 이주를 말하다'
    - 파리의 어린이와 부모가 난민 어린이·부모와 함께 놀이방에 모여 놀이활동을 하는 행사
  - 어른을 대상으로 축구·태권도·호신술 등 스포츠를 같이 배우는 행사 개최
  - 벽화와 연극 등 예술행사 진행
    - 난민문제를 그림·벽화·연극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함께 표현
    - 파리시민과 난민이 서로에게 선물해 줄 화분과 꽃다발 만들기
  - 파리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 아랍어 특강 개최
  - 아랍 요리를 함께 만들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
  - 난민문제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미디어테크 행사

- 난민문제에 개입했던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파리시민과 난민 모두와 나누는 행사
- 난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는 파리시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행사

– 시사점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져 최근 불거지는 난민문제를 더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
    - 서울시는 파리시와 유사한 수준의 국제적 도시이므로 국내 다른 도시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파리 연대축제에서 배울 점은 중앙정부가 난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하든 상관없이 이미 난민을 같은 파리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과 난민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자 축제를 개최했다는 점
    - 최근 국내에 난민혐오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처럼 시민과 난민이 접촉할 기회와 공간이 마련된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조금씩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https://www.paris.fr/actualites/une-fete-solidaire-pour-la-journee-mondiale-des-refugies-5920
https://www.paris.fr/actualites/refugies-la-ville-est-prete-a-apporter-son-aide-a-l-etat-5823
https://www.paris.fr/aideauxrefugies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행재정·교육

구글·市 공동운영 디지털 아카데미 개원

스웨덴 스톡홀름市 / 행재정·교육

○ 스웨덴 스톡홀름市는 지난 5월 3일 구글(Google)과 공동운영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구직자·학생·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의 비즈니스 활용법 교육 등을 올 10월 말까지 무료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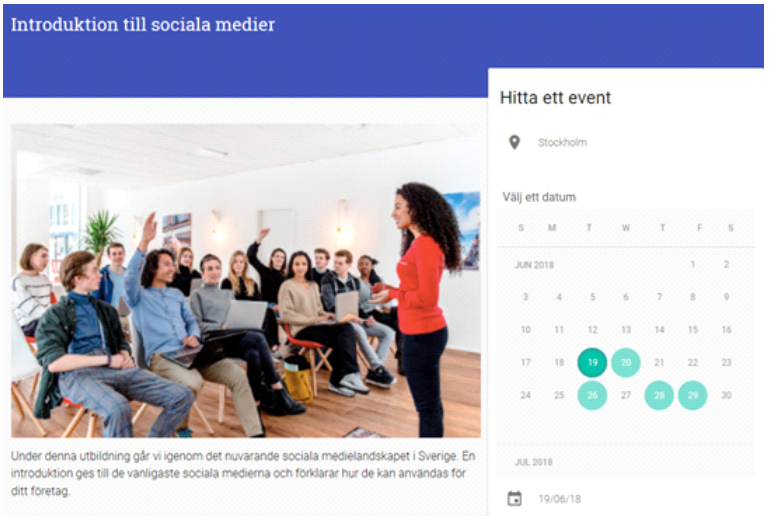
- 배경
  -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분야의 직업은 2030년에 지금보다 2배 늘어날 전망
    - 이에 따라, 구직자·학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아카데미를 개원
    - "스톡홀름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될 것이며, 이미 많은 프로그래머가 있다. 디지털 아카데미는 우리가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스톡홀름 재정부 카린 반골드(Karin Wanngård)
    - "스웨덴의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 구글 스웨덴 매니저 안나 비클란드(Anna Wikland)

- 주요 내용
  - 2018년 5월 3일 스톡홀름 야코브스베르그스탄(Jakobsbergsgatan)34 지역에 구글과 스톡홀름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를 개원
    - 10월 말까지 운영하며, 1만여 명의 시민에게 디지털기술을 가르칠 계획
    - 수강생의 지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
  - 교육 내용은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일상 디지털 지식, 디지털 혁신 등
    - 스웨덴의 소셜미디어 사용현황과 비즈니스 활용 방법
    - 개인이나 회사를 온라인에 홍보하는 방법
    - 온라인 활동 분석

- 비즈니스 성공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활용법
- 검색엔진 마케팅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 VR-Science를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 소개
-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조언
- 웹사이트와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심화 웹 분석
- 블록체인 소개
- 우수 웹사이트 사례 소개



[그림 1] 스톡홀름 디지털 아카데미 수강신청 페이지

http://www.stockholm.se/-/Nyheter/Uppkopplad-stad/Stockholms-stad-och-Google-lanserar-utbildningskoncept-for-digitala-fardigheter/

https://learndigital.withgoogle.com/digitalakademin/f2f

허윤회 통신원, yoonhoi.so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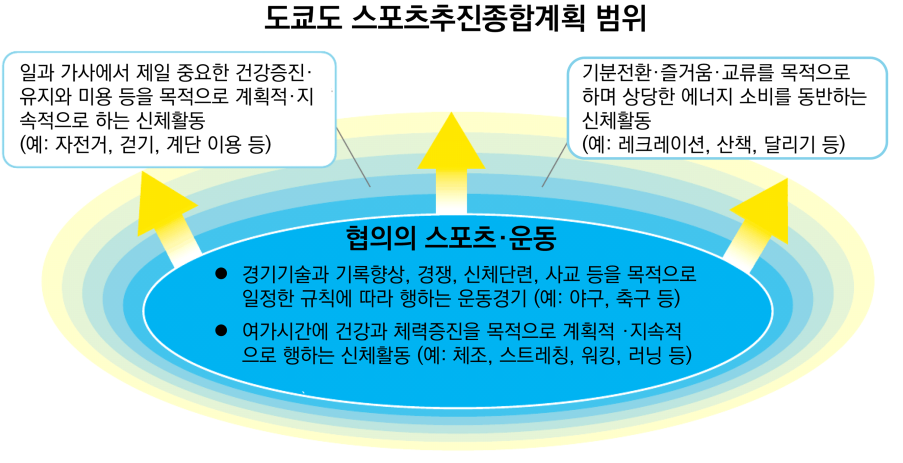
스포츠 활동 참여율 70% 목표 종합계획 수립

일본 도쿄都 / 행재정·교육

○ 일본 도쿄都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도민 스포츠활동 참여율 70% 달성과 스포츠 전반의 무장애화(Barrier Free)와 유니버설디자인 구현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스포츠 진흥 등을 목표로 하는 '도쿄도 스포츠추진종합계획 2018~2024'를 수립

– 개요

-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대비하며 '스포츠도시 도쿄' 실현을 추구
  - ○ 도쿄도 스포츠 진흥정책의 기조를 담은 계획으로, 지난 3월 수립
  - ○ 스포츠에 관한 도민의 관심이 커지고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는 등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는 실정이며, 이에 맞는 스포츠정책을 추진할 필요
- 기존의 스포츠추진계획과 장애인스포츠진흥계획을 통합
  - ○ 2013년 3월 수립한 '스포츠추진계획'과 2012년 3월 수립한 '도쿄도 장애인 스포츠진흥계획'을 통합해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
  - ○ 도민 스포츠활동 참여율 70% 달성 목표
  - ○ 스포츠 전반에 무장애화를 추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장애인 배려의 보편화를 지향



[그림 1] 도쿄도 스포츠추진종합계획 개념

- 정책목표
  - 1) 스포츠로 건강·장수 달성
    - 지속적인 스포츠활동 참여로 체력을 향상하고 건강을 유지·증진
    - 도쿄 스포츠시설 서포터즈를 만들고, 스포츠 지원활동을 계속 유지
    - 달성지표: 18세 이상 운동 참가자 비율, 중학교 2학년 대상 운동선호 조사, 18세 이상 스포츠 관련활동(어린이 운동관람·지도 등) 참여율 등
  - 2) 스포츠로 공생사회 실현
    - 수련을 바탕으로 승패를 겨루는 스포츠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을 길러줌으로써 다양한 사람과 함께 사는 공생사회 실현에 이바지
    - 여성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
    - 2020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무장애화 적용
    - 달성지표: 18세 이상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율, 20~30대 여성 스포츠활동 참여율, 60세 이상 스포츠활동 참여율
  - 3)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성화
    -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스포츠경기를 관람하는 것은 스포츠 관련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
    - 스포츠클러스터의 정비와 활용
    - 달성지표: 연간 스포츠경기 직접관람비율, 2020년 도쿄올림픽 도민 운동선수 발굴·육성·강화 정도, 도쿄 스포츠시장 규모(스포츠GDP)

http://www.koho.metro.tokyo.jp/2018/05/03.html

https://www.sports-tokyo.info/policyinformation/council/master_plan/index.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비라이드 앱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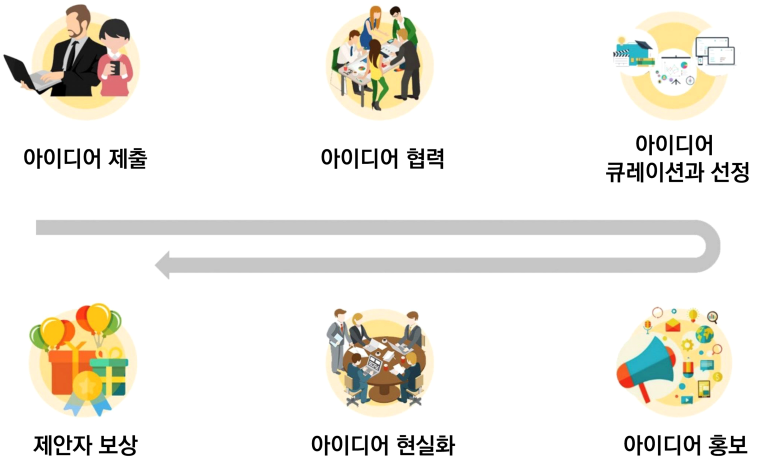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 행재정·교육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기존의 시민 의견개진 통로였던 모바일 앱 Qlue로는 시민참여가 제한적임을 인지하고, 시민이 도시개발 파트너라는 인식 아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비라이드(BERiDE) 앱을 개발하고 보급

- 배경
  - 전임 주지사 때 개발한 모바일 앱 Qlue는 시민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에 관할부서가 신속히 대응해 호평
    - ○ 하지만 '불만접수 → 처리' 형식의 단방향 서비스로 완전한 시민참여가 제한
    - ○ 또한, SNS 등으로 불만접수 채널이 다양화되어 이용량이 줄어드는 추세
  - 시민을 공동창조자(Co-Creator)이자 역할 분담자로 인식하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적극적 시민참여를 끌어낼 목적으로 새로운 시민참여 플랫폼 개발에 착수

- 주요 내용
  - 노점상 재배치, 사회복지 확충, 도심공원 재생, 관광 활성화 등의 도시현안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안 모색에 시민 공동체의 의견이 필수라는 생각에서 착안
    - ○ 주정부가 시민을 보는 관점이 '고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공동참여자'로 변화함을 의미
    - - 주정부 공무원의 틀에 박힌 사고를 보완하고 창조성을 더하는 효과를 기대
  - 비라이드 앱은 시민이 새로운 의견이나 대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고, 주정부는 물론 다른 시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
    - ○ 기존에는 시민이 개발계획 포럼이나 공동협의체인 무스렌방(musrenbang)에 참여할 때만 제한적인 상향식 의견개진이 가능했음
  - 제안할 의견이 있는 시민은 웹사이트에서 유형, 제목, 위치, 의견, 시사점 등을 기재해 제안하고, 동영상 등 시각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 올라온 의견은 담당부서에서 관할부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안자의 의견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됨
    - ○ 다양한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 학생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경쟁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

- 주정부 청사 스마트시티 오피스에서 5월 23일 비라이드 앱 출시를 공식 발표
  - 앱 개발은 도시계획, 건축, 지도화, 정보시스템 설계 전문의 신생 스타트업 PT Beride Karya Indonesia에서 담당
- 기존 민원 앱인 Qlue는 본래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며 비라이드 앱을 보완
  - 현재 매일 약 500건의 민원(주로 쓰레기나 불법주차 관련)이 접수



[그림 1] 자카르타 비라이드 앱 시민참여 과정

http://jakarta.beride.id/

http://wartakota.tribunnews.com/2018/05/23/aplikasi-beride-wadah-ide-masyarakat-untuk-selesaikan-masalah-jakarta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5/23/15003241/punya-ide-untuk-menata-jakarta-jadi-lebih-nyaman-sampaikan-di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5/25/new-website-seeks-to-engage-jakartans-in-city-development.html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8/05/23/no-more-qlue-as-jakarta-administration-introduces-beride.html

http://megapolitan.kompas.com/read/2018/05/28/19360341/beride-apa-bedanya-dengan-qlue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정부기관 웹사이트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개편

미국 뉴욕市 / 행재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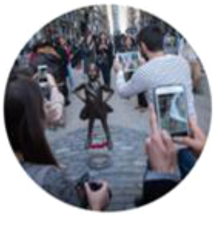
○ 미국 뉴욕市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총괄하는 최고기술자문관(Chief Technology Officer) 팀은 지난 2016년부터 시정부가 활용하는 디지털수단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NYC Digital(디지털 뉴욕시)을 진행해,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사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개편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모든 부서에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

– 배경

- 뉴욕시의 스마트시티 전략과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은 더 효율적으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 스마트시티 전략·정책은 최고기술자문관이 총괄
  - ○ 스마트시티 전략의 지속성과 효과를 확보하고자 2016년 10월 임명하고 해당 팀을 시장 직속기구로 배치
  - ○ 여러 부서의 스마트시티 전략·정책을 총괄 관리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 NYC Digital은 시정부가 활용하는 디지털수단(웹사이트나 SNS 등)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 ○ 뉴욕시 최고기술자문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하나

50%

미국인의 50%는 온라인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찾음



73%

연소득 1만 달러(1,100만 원) 이하의 뉴욕시민 73%가 스마트폰을 소유

50%

정부기관 웹사이트 방문자의 50%는 최근 방문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해결

[그림 1] 뉴욕시 웹사이트 활용 현황

자료: http://www.pewinternet.org/2010/04/27/government-online

- 주요 내용
  - 2016년 NYC Digital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
    - ○ 시정부 활용 디지털 수단의 접근성과 만족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고위관료, 공무원, 시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 6개와 세부목표를 작성
    - - 해당 내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최신 진행과정을 꾸준히 업데이트
  - 6대 목표와 주요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음
    - ○ 1) 웹사이트 설립 과정 개선
    - - 각 부서 내 디지털 디자인과 접근성을 담당할 신규 인력 확충
    - - 시정부와 계약한 외부회사가 각 부서에 지속적인 디자인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하도록 조치
    - ○ 2) 디자인과 웹사이트 표준화
    - - 인간중심 디자인(Human-Centered Design) 철학이 반영된 서비스 디자인 안내책자를 개발해 전 부서가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 시민의 의견개진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의 대응방식을 표준화해 일관성을 유지
    - ○ 3)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 - 모든 서류양식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 시정부의 서비스나 관련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엔진 사이트 개발
    - ○ 4) 리서치와 서비스 테스트를 우선시
    - - 팝업창을 만들어 새롭게 개발한 웹사이트나 접근성 향상을 유도하는 콘텐츠가 잘 활용되는지를 일반시민 대상으로 테스트
    - ○ 5)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유지
    - - 외부 전문 단체와 협력해 검색엔진의 성능을 향상
    - - 지역 도서관처럼 오프라인에서 지역시민을 지원하는 기관이 시정부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6) 모두가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중학생 수준의 읽기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어와 문장을 사용
    - - 영어 외의 상위 6개 외국어로 모든 서비스 내용을 번역
    - - 특히 자연재해를 비롯한 응급상황 관련 문자서비스는 기계번역이 아닌 전문가가 직접 번역한 외국어를 사용

- NYC Digital 프로그램의 목표, 진행 상황, 표준 웹사이트 개발 과정을 담고 있는 NYC Digital Blueprint 웹사이트를 발표
  - 시정부 공무원을 위한 사이트로, 정부 웹사이트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
    - 외부업체와의 계약, 표준 디자인, 접근성 향상 전략, 소셜미디어 유지 전략 등
  - 뉴욕시장 직속 최고기술자문팀이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워크숍을 진행해 웹사이트를 개선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843-16/mayor-de-blasio-appoints-miguel-a-gamino-jr-nyc-chief-technology-officer

https://tech.cityofnewyork.us

https://tech.cityofnewyork.us/teams/digital

https://tech.cityofnewyork.us/projects/digital-playbook-2-0

https://blueprint.cityofnewyork.us

이수진 통신원, nowsujinsays@gmail.com

도시계획·주택

기업·市·대학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일본 요코하마市 / 도시계획·주택

○ 일본의 가전기업 파나소닉은 CRE(기업 부동산) 활용전략의 하나로 요코하마市에 쓰나시마 SST(綱島 Sustainable Smart Town)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여러 기업과 대학·시정부와 협력해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실험을 진행 중

- 배경
  - 가전기업 파나소닉은 자사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SST) 만들기를 시도
    - ○ 2014년 후지사와(藤沢) SST를 조성한 이후 2번째로 쓰나시마 SST를 계획
    - ○ 기업 소유의 부동산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 등과 협력해 다양한 혁신사업을 창조하는 CRE 전략의 하나
    - -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로 국내외에 홍보
  - 파나소닉 주식회사와 노무라 부동산 주식회사가 대표간사 자격으로 2015년 12월 '쓰나시마 SST 협의회'를 설립하고 요코하마시가 옵저버로 참가
    - ○ 2016년 3월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하고, 11월에 모든 시설을 동시 착공
    - ○ 2018년 3월 완공 후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과 공동 혁신창출 거점으로 기능

-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
    - ○ 복합형 상업시설(유니 주식회사), 스마트 기술개발시설(미국 Apple社), 분양 아파트(노무라 부동산 등), 국제학생 기숙사(게이오기주쿠대학), 타운 매니지먼트센터(파나소닉), 타운 에너지센터(도쿄가스그룹), 수소 스테이션(JXTG 에너지) 등
    - ○ 2017년 5월에는 거리의 보안 파트너로 방재·방범 전문기업 ALSOK가, 모빌리티 파트너로 통신회사 도코모가 새롭게 참여

- 콘셉트는 '이 거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 파나소닉 이외에 다른 분야의 여러 기업, 게이오기주쿠 대학, 지역주민과 근로자가 협력하여 혁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 환경·안전·보안목표 수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
  - 환경목표: CO_2 배출량과 생활용수사용량을 2005년 대비 각각 40%와 3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2005년보다 30% 증가
  - 안전목표: 재해발생 시 라이프라인(Lifeline: 전기·수도·가스·전화 등 현대생활의 생명선과 같은 필수 시스템의 총칭) 3일 확보
  - 보안목표: 주요출입구의 영상확보율 100% 유지, 화재 등 사건현장에 15분 이내 도착 등
- 운영규정은 디자인, 지속가능성, 스마트의 3가지 코드를 위주로 구성
  - 디자인코드: 거리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나 의장에 관한 규정
  - 배치, 색, 형태, 소재, 연출, 식재계획, 옥상계획 등
  - 지속가능코드: 미래 세대와 환경을 고려한 마을 조성·운영 관련 규정
  - 온실가스, 건강·환경 배려 재료, 물, 폐기물, 생물다양성, 공익성 등
  - 스마트코드: 편리·쾌적·안전한 생활에 관한 규정
  - 마을 만들기 사상, 자동화(무인화), 쾌적성 등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라이프 실현을 돕는 스마트서비스
  - 에너지, 보안, 모빌리티, 건강, 커뮤니티, 시설물의 6가지 스마트서비스 제공
  - 거주민, 근로자, 방문자 모두의 관점에서 쾌적성과 미래생활을 추구
- VR과 3차원 영상 기술 등을 활용한 마을운영플랫폼
  - 3차원 정보로 모든 거리를 컴퓨터로 재현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가시화
  - 각 시설의 상황이나 주변정보 등을 일원화해 스마트한 마을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마을의 가치를 높이는 운영플랫폼
- 주목받는 신기술을 실증하고 혁신적인 사업을 창출
  - IoT(사물인터넷) 센싱, 순수소형 연료전지, 천창(天窓) 조명(점포 공간의 가치 향상이나 고객의 심리적 효과를 검증) 등의 신기술을 실험

http://tsunashimasst.com/JP/

https://tsst.scim-service.jp/#/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세계최고 스마트시티 목표…5개 미션 제시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시장(市長) 사디크 칸은 런던을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 '스마터 런던 투게더'(Smarter London Together) 계획을 발표함. 이 로드맵은 도시의 연결성·협력성·대응성 향상을 지향하며 5가지 주요 미션을 제시

- 개요
  - 세계최고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 런던이 상호 연결되고(Connected), 협력하고(Collaborative), 시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Responsive) 도시가 되는 것을 추구
    -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도시 데이터의 스마트한 활용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5가지 주요 미션을 제시

- 5가지 주요 미션
  -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기준과 지향
    -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디지털기술 개발
    - '시민 혁신챌린지'(Civic Innovation Challenge)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술 분야의 혁신을 유도
    -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돕는 새로운 소통 플랫폼 구축
    - 기술 분야의 다양성을 증진해 불평등 개선
  - 도시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법
    - 런던 데이터분석(London Office for Data Analytics) 프로그램 시행으로 도시 데이터의 공유·협력을 강화
    - 산업·금융·공공서비스와 시민을 해킹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서 보호하는 도시 사이버 안전전략 개발
    - 데이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강화해 공공데이터 사용체계의 신뢰 구축
    - 데이터의 열린 생태계를 지원해 투명성과 혁신성을 높임
  - 세계적 수준의 연결성과 스마트 도로
    - 도시 연결성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Connected London'계획 발표

    - 도시개발 계획에 초고속 인터넷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도시의 연결성을 높임
    - 도로와 공공건물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런던의 주민, 근로자, 관광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기술을 일반화해 시민 혜택을 극대화
- 디지털 리더십과 기술 향상
    - 디지털·데이터 리더십 향상으로 공공서비스가 혁신을 더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게 함
    - 시정부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해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능력을 발전
    - 컴퓨터와 디지털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의 교육을 지원
    - 디지털 세계의 문화적 규범과 그 역할을 인지
- 도시 전반의 협력 강화
    - 런던 기술·혁신과(London Office of Technology & Innovation)를 설립해 미래 혁신에 관한 기준을 세우고 역량강화를 지원
    - 의료기술(MedTech) 분야의 혁신을 도와 사회적 의료서비스 역량을 강화
    - 기술과 사업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 탐구
    - 스마트기술 활용으로 런던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임
    - 다른 국내외 대도시와 스마트기술 적용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협력
- 이 5개의 미션은 세계최고의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한 초석이 되며, 하나의 로드맵으로 작동
    - 런던의 도시 데이터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더 공평하고 평등한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런던시민의 행복과 편안한 삶을 추구

https://www.london.gov.uk/what-we-do/business-and-economy/supporting-londons-sectors/smart-london/smarter-london-together

https://data.london.gov.uk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세입자·지역사회 실정 맞춰 임대료 제동법 개정

독일 베를린市 / 도시계획·주택

○ 독일 지방정부 최초로 주택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법으로 제한하는 '임대료 제동법'을 시행한 베를린市는 최근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세입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춰 표준임대료표를 조정하고 예외조항을 줄이는 등 강화방안을 마련

- 배경
  - 베를린시는 지난 2015년 6월 독일 지방정부 최초로 '임대료 제동법'을 제정
    - ○ 정식 명칭은 '긴장된 임대시장의 임대료 상승 제동을 위한 법률'(Gesetz zur Dämpfung des Mietanstiegs auf angespannten Wohnungsmärkten)
    - ○ 주요 내용은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표(Mietspiegel)를 작성하고, 그 수준을 넘는 신규 월세계약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 \- 표준임대료표는 주택정보(위치, 크기, 내외설비, 건설 연도 등), 주변환경(소음, 밀도 등), 주변시설(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2년마다 작성
  - 하지만 각종 예외조항 때문에 빈틈이 많고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
    - ○ 꾸준히 법안 강화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시정부는 새로운 임대료 제동법안을 시의회에 제출
    - ○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9일 시의회를 통과했고, 7월 연방상원의회에서 최종표결에 부쳐질 예정

- 주요 내용
  - 예외조항을 철폐하거나 제한
    - ○ 계약 전 임대료가 표준임대료보다 높을 때, 주택현대화 사업 비용을 임대료에 부과할 때는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지 않던 예외조항을 철폐
    - ○ 기존에는 가구가 갖춰진 임대주택(Möblierte Wohnung)을 이유로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적정수준으로 제한
    - ○ 임대료 제동법 위반은 경제형법(Wirtschaftsstrafgesetz)상 불법으로 규정되며, 행정당국의 감시를 받게 됨

- 임대료 상승 제한기간을 늘리고 표준임대료표를 개선
  - ○ 기존 임대료 상승 상한선은 3년간 20%(과열지역은 15%)였지만, 개정 법안에서는 5년간 20%로 제한기간을 연장
  - ○ 기존 표준임대료표는 4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음
    - 이에 따라, 앞으로 표준임대료표는 10년간의 신규 임대계약, 재계약 등의 모든 계약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해 좀 더 지역 상황을 잘 반영하도록 함
- 주택 현대화사업 이후 임대료 상승도 적정수준으로 제한
  - ○ 기존에는 집주인이 주택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면, 공사비의 최대 11%를 분담금으로 연간임대료에 무기한 부과할 수 있었음
    - 신 임대료 제동법에선 분담금을 공사비의 최대 6%로 제한하고, 청구기한도 무기한에서 공사비용 회수 시기까지로 제한
    - 월세에 부과하는 현대화사업 분담금은 1㎡당 2유로(2,600원)로 최장 8년까지만 부과할 수 있음
    - 임대주택 과열지역은 현대화사업 분담금을 포함한 총 임대료가 표준임대료표의 10%를 넘을 수 없음
  - ○ 이는 초호화 현대화사업으로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부담할 수 없어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치
- 과도한 월세 지출로 경제상황이 곤란해진 임대 가구에 주거 보조금 지급
  - ○ 임대 가구가 수입의 40% 이상을 월세(난방비 포함)로 지출하는 상태를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Härtefall)으로 정의하고, 주거 보조금 신청 자격을 부여
- 임대계약 해지 보호
  - ○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았어도, 임대계약 해약의 조건을 갖추면 일방적인 임대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
    - 새로운 임대료 제동법은 이와 같은 일방적 임대계약 해지를 금지

– 의의

- "21세기 도시의 사회적 문제는 주거이며, 이번 개정안은 임대법이 다시금 사회적 성격을 갖게 하도록 의도했다"

  - 베를린시 소비자보호·반차별청 장관 덕 베렌트(Dr. Dirk Behrendt)

  - ○ 구 임대료 제동법이 세입자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음을 인정

- 독일 연방정부도 새로운 임대료 제동법 강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
  - 독일 법무부 장관 카타리나 발리(Katarina Barley)를 필두로 독일 사민당에서 새로운 임대료 제동법 강화 법안을 제출
    - 베를린시의 안이 더 급진적인 것으로 평가
  - 동시에 2가지 강화 법안이 나온 것은 기존 임대료 제동법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점과 세입자 보호가 독일·베를린 정치권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음을 시사
- 베를린 세입자연합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일부 요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
  - 강화된 법안에도 여전히 예외조항이 존재하고, 세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으로 비판
  - 하지만, 주택 현대화사업에 따른 임대료 상승 제한은 긍정적으로 평가

https://www.berliner-zeitung.de/berlin/bundesratsinitiative--berliner-senat-laesst-sich-zeit-mit-dem-mieterschutz-30070846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8/pressemitteilung.705909.php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4246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wohnungsnot-was-bringt-eine-schaerfere-mietpreisbremse-fuer-die-mieter/22653584.html

https://www.taz.de/Mieter-Vertreter-ueber-Mietpreisbremse/!5507931/

신희완 통신원, heewan.shin@gmx.de

에어비앤비 규제강화로 '실거주자 보호'

프랑스 보르도市 / 도시계획·주택

○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인 프랑스 보르도市 는 '에어비앤비'(Airbnb)나 그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객을 상대로 단기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이 늘어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자, 지난 3월 1일부터 관광객 숙박 허용일수를 제한하고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실거주자를 보호

– 배경

-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에 사용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
  - ○ 보르도 시내에서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 증가율이 2013~2014년 200%, 2014~2015년 100%를 기록
  - ○ 전체 임대용 주택 1만~1.4만 채 중 약 8천 채가 에어비앤비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단기여행객을 받기 위한 가구를 갖춘 것으로 파악
- 단기임대주택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원인
  - ○ 보르도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이 단기임대의 과잉공급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 시행
- 시정부의 목적은 대학생·서민·노인을 위한 원룸이나 투룸의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
  - ○ 원룸과 투룸은 에어비앤비에서 많이 임대되는 주거형태
- "이것은 에어비앤비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규제가 아니라 공급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조치다"

  - 보르도시 관광담당보좌관 스테판 드로(Stephan Delaux)

– 내용

- 에어비앤비 등 단기여행객을 위한 주택임대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한
  - ○ 실제 자신이 거주 중인 주택 내에 방 하나를 임대하는 집주인
    - 실거주 주택을 단기여행자에게 임대할 때는 연간 120일까지만 허용
  - ○ 단기임대업자나 민박형태(gite, 지트)의 숙박업자
  - ○ 위반사항 적발 시 민사소송은 5만 유로(6,500만 원), 형사소송은 8만 유로(1억 400만 원)의 벌금 부과
- 실거주 주택이 아닌 주택을 단기여행객에게 대여할 때는 전문임대업자로 등록

    -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여행객 등 단기거주자를 받으려면 주택 용도를 사업용으로 변경하고 전문임대업자로 등록해야 함
    - 또한, 해당 임대업자는 같은 크기와 조건의 두 번째 주택을 관광객이 아닌 일반 주민에게 장기임대해야 함
    - 이로써 에어비앤비형태의 단기 임대업만 연간 120일 이상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짐
- 다주택자에게는 두 번째 주택부터 과세적용
    - 호텔이나 아파트호텔 같은 숙박업에만 적용하던 체류세도 1~5% 증세하는 안이 국회 표결 통과

– 시사점

- 관광객이 집중되는 도시일수록 에어비앤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단기임대 전문 임대업자를 급격히 늘려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
- 프랑스는 임차인의 재임대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음
    - 하지만,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갈수록 악화해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름
- 서울은 아직 제대로 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도 재임대 형식으로 단기임대업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주소
    - 해외 유명관광지에서 변질된 형태의 에어비앤비용 임대주택이 도시를 잠식해 주민을 떠나게 만드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도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https://taxedesejour.bordeaux-metropole.fr/

https://france3-regions.francetvinfo.fr/

https://www.sudouest.fr/2018/02/27/location-airbnb-a-bordeaux-ce-qui-change-a-partir-du-jeudi-1er-mars-2018-4235986-4710.php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

ISSN 2586-5102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